



■체전 총괄운영 신 광 조 종합상황실장

“시민의 힘이 성공 체전 이끌어”

신 실장은 “사실 대회 직전에 비가 내려 걱정했는데 우선 날씨가 도와줬고, 17만 범시민지원단이 힘을 보탤”면서 “특히 내년 베이징올림픽에 앞서 박태환, 장미란, 이원희 같은 월드스타가 출전한 것도 대회의 성공적 운영에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신 실장은 “몇 달 전부터 시민들이 노력을 기울였고 체전 기간에도 몸을 아끼지 않았다. 교통비만 받고 자원봉사를 해준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태환 등 월드스타 출전에 날씨도 도와 유니버시아드 치를 수 있는 자신감 생겨

그는 박태환 등 스타 효과에 대해서도 “한 여학교는 자율학습 시간에 박태환을 보러 갔고, 학생들이 무척 만족했다는 말을 들었다. 스포츠 행사는 역시 인기 스타가 있어야 불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숙박요금 시비와 일부 종목의 다름 등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냈다. 신 실장은 “해마다 되풀이되긴 하지만 숙

박업소 요금 시비가 있었던 것과 일부 종목에서 몇몇 인사들의 총돌이 해묵은 지역감정 재연으로 비쳐진 점은 유에 티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앞으로 이번 체전이 거둔 효과에 대해 “체전 기간에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이 얻은 현금 수입만 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상인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특히 개최지인 광주가 역동적인 도시로 변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킬 수 있었다. 또 유니버시아드를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도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라고 자랑했다.

/광·사진=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내년 전남체전 기획담당 최희우씨

“113년만의 단독 체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



“전남도도 생긴 이래 113년만의 첫 단독 체전이어서 그런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완벽한 체전을 위해 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의 준비상황과 행사 전반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내년에 열릴 89회 전남전국체전을 준비중인 최희우(54·사진) 전남도 체전 기획담당장의 각오다.

최 담당장은 “광주에 비해 경기장 시설이나 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한 전남이지만 도민과 체전 관계자들의 열의만큼은 어느 시·도 못지 않다”며 내년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했다.

그는 또 광주체전을 현장에서 지켜본 소감도 내놓았다. 최 담당장은 “이번 체전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훌륭한 시설 등으로 잘 치러진 행사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뒤 “다만 홍보가 다소 부족해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졌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담당장은 “문화예술과 관광이 발달한 전남에 맞게 감동과 재미가 있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충실히 준비하겠다”며 “내년에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체전에 광주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89회 전남전국체전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간 여수 진남경기장을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61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현재 나주 종합사이클 경기장 등 3개 경기장을 신설하고 나머지 58개 경기장은 개·보수 중이다.

/광·사진=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직원들이 전국체전 마지막날인 14일 광주월드컵경기장내 체전 사무실에서 대회 최종 마감에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위·사진=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휴~ 10일만에 집에 들어 갑니다”

■“숨은 주역” 광주시체육회 직원들

선수보다 더 피말리는 비상근무 “성공체전으로 고생 보상 받았죠”

“휴! 10일만에 집에 들어 가네요.”

14일 밤 8시, 제88회 전국체육대회 폐막식이 끝난 광주월드컵경기장 1층 상황실에서 나무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하 광주시체육회 직원들이 모두 모여 짧은 회의를 가졌다. 나 부회장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는 마무리 인사와 함께 이번 체전 공식임무를 마쳤다. 직원들 서로가 격려의 악수와 포옹을 나눴고 안도의 한숨을 지었다.

길고도 긴 일주일이었다. 주차장 관리, 선수단 관리, 원활한 경기진행과 16개 시·도 선수단의 민원과 고충처리 등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의 연속이었다.

지난 9월부터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체전을 준비한 광주시체육회 직원들은 체전기간 동안에는 아예 집에 들어갈 염두를 내지 못했다. 매일 오전7시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해 기획·총무팀은 밤 9시, 상황실은 새벽이 돼야 일이 끝났다. 월드컵 경기장 인

근의 숙소에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빨라야 새벽 2~3시.

홍은주(여·35)·박희영(여·30)·박현덕(여·27)·서경남(여·25)씨 등 광주시체육회 여직원 4인방은 “돈 들이지 않고 다이어트를 했다”며 “성공리에 체전이 끝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다”고 웃었다. 불규칙한 식사와 한 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으로 인해 그녀들의 허리치수가 1인치 정도 날씬해진 것. 특히 결혼 1년차인 박희영씨는 남편과 일주일만의 헤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다.

문부홍(40)기획·총무팀장은 체전 지원 총괄과 외부인사 접대, 민원처리로 하루 해가 짧았다. 일이 끝난 밤 10시 이후 이뤄지는 손님맞이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어 더욱 힘이 들었다.

정재환(29)씨는 “휴대폰 개통 한 후 4년 통화량보다 일주일 통화량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고, 노치일(42)상황실 총괄과 시·도별 전력분석팀장은 광주의 종합3위를 위해 하루 하루 숫자와 싸워야 했다. 조태현(32)씨와 유성훈(31)씨는 선수단 격려와 수송, 경기장 질서유지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고, 박성용(33)씨는 경기장 자원봉사자 관리를 담당했다.

나 상임부회장은 “이번 체전의 성공은 광주시민의 노력덕분이다”고 모든 공로를 시민들에게 돌렸고, 전화철(56)사무처장은 “대과 없이 체전이 성공적으로 끝나 광주가 일등시민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무등경기장·구동체육관 건립 실무 박관주씨

“외국보다 훌륭한 경기장 감개무량 46회 체전 때 암사사고 마음 아파”

“몇 십년 전 외국을 돌며 감탄했던 경기장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감개무량합니다.”

광주 최초의 현대 체육시설인 무등경기장을 지었던 박관주(81·광주시 북구 윤립동)씨가 이번 광주체전의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둘러보고 난 소회다. 박씨는 올해 뿐 아니라 광주·전남 체육의 산증인으로 40년 넘게 전국체전 현장을 빼놓지 않고 방문해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박관주씨가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1965년 10월6일자에 실린 제46회 전국체전 개막식 기사 복사본을 보며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위·사진=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행정가였던 박씨가 체육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65년 제46회 전국체전. 당시 전남도 회계과장이던 박씨는 김보현 전남지사로부터 그럴듯한 경기장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는다. 건축행정은 회계과의 업무였다. 전문 체육부서나 담당자도 없었다.

“아예 회계과에서 전국체전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때 지은 것이 지금 무등경기장과 구동체육관이죠. 체육과는 무관하던 내가 체육계에 발을 내민 순간이었죠.”

이후 박씨는 46회 체전을 위해 광주 곳곳에 사격장, 승마장 등을 차례로 지었다. 현대적 모습을 갖춘 광주·전남 최초의 체전이었다. 그러나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 날, 새벽부터 몰린 10여만 인파로 12명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후 신안·곡성·해남군수를 거쳐 순천 시장을 역임하던 박씨에게 다시 도청의 부름이 왔다. 고건 전남지사가 1977년 제

58회 체전을 위해 보건사회국장으로 경험 많은 박씨를 불러들인 것. 박씨는 “광주는 체전과 함께 발전했다”며 “46회 때 광주·송정리(현 광산구 송정동)간 도로가 확장됐고, 58회 때는 중앙로·천변로가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고 말했다.

58회 체전을 무사히 마친 박씨는 1978년 안도 청산도 앞바다의 의료선 침몰 사고 이후 공직을 사퇴했지만, 1980년 11월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추대되면서 다시 체육과의 인연을 이어간다. 박씨는 현재의 도체육회 건물을 짓고, 각종 규정들을 마련해 체육회의 기틀을 마련했다.

박씨는 40여년 동안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체육회의 행정을 책임지는 임원으로, 후배들을 격려하는 광주·전남 체육계의 원로로 전국체전의 현장을 지켜왔던 것이다.

“내년 전남체전에도 당연히 가봐야죠. 아직 건강이 쓸만 하니까요. 허허.”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강력사건 全無...1등 광주, 1등 경비 뿌듯”

■경비 총괄 김해모 경정

“역대 전국체전 중 가장 안전한 대회였다고 자부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김해모(47·경정)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전국체전의 주경기장이었던 월드컵경기장과 영주체육관 등의 모든 경비업무를 총괄했다.

안전한 전국체전을 위해 각 경찰서에서 900여 명의 직원과, 2천여 명의 전·외경이 동원됐고 서부경찰서는 이번 경비작전을 주관했다.

“계속되는 야간 근무에도 불평불만 없이 임무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이 이번 체전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 결과 체전 기간 동안 강력사건이 1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전국체전이 끝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시원섭섭하다”며 “1등 광주에서 1등 경비가 펼쳐진 것 같아 기분 좋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ong S. S. S.' (홍스제이스) featuring a sofa and text: '100% Made in Italy', '완벽, 클래식, 커우치소파', '광주광역시 동구 장림로14길 19-1 (구도심) 062)226-1567'.

Advertisement for 'Chongga-jip Seongrye-tang' (총가집성령탕) featuring a map and text: '확장이전', '062)374-0015'.